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 토요일 연장 운영한다

오는 7월 15일까지…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영농편의 제공 기대

함평군이 농번기를 맞은 농업인에게 영농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7월14일까지 총 2개월간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본점에는 콩 파종기, 논두렁 제초기, 논두렁 조성기,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52종 161대를 구비하고 있다.

사전에 전화(☎320-2502)를 통해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종별로 최대 3일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 1천원~14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박은하 영농지원과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장 휴일 확대운영을 통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가을 농번기철에도(10월~11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장 본점 토요일 연장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에 기여하기 위해 민선5기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1년 본점, 2015년 동부점에 이어 2017년 서부점을 조성한 바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군, 영농철 '마을공동급식 인기'

82개 마을 공동급식 실시

농작업이 바빠지는 시기에 맞춰 농업인의 식사 걱정을 덜어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도 본격화되고 있다.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식사 걱정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서 공동급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공동급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이달 초 농업인회관에서 사업대상 마을 관계자와 조리원,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마을공동급식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방법과 정산방법, 급식명부 관리 방안까지 자세히 전달했다.

장성군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82개 마을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마을에는 25일분의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반찬배달 사업비 등 2백만원이 지원된다. 급식 일자는 마을 여건에 따라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또 음식을 조리할 여건이 안되는 마을은 반찬 배달을 통해 공동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공동급식은 특히 여성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바쁜 농사철 여성농업인들은 농작업에 더해 식사 준비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급식으로 식사 문제가 해결돼 농번기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반응이다.

구암마을 노정숙씨는 "매년 모내기철이 되면 공동급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며 "식사 준비 걱정이 없어 농사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고흥군, 황금 해역 위한 맞춤형 수산 종자 방류 행사

어족자원 조성과 어가 소득 증대 효과 기대

청정 고흥 해역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사수하기 위한 '2018년 방류 행사'가 도양읍 녹동항과 봉래면 신금항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3일 감성돔 치어 13만6천미를 도양읍 녹동항 일원에, 어린대하 5백만미를 봉래면 신금항 일원에 지역 주민, 공무원 및 유관 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류 행사를 실시하였다.

군은 지난 4일 전복 6만5천미 방류를 시작으로 17일 참돔 11만2천미, 18일에 돌돔 10만미, 3종 27만7천미를 방류한 적이 있으며, 2017년만해도 황금 해역 조성을 위해 6종 천백만미를 방류한 적 있다.

조업어장의 축소와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환경 변화로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어가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관계자는 "방류한 고소득 어종인 감성돔, 대하 치어가 성어가 되면 어획량 증가로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방류 해역에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어업인 및 어촌계와 협력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18년 방류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앞으로도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돌돔, 참돔등 수산종자 방류를 지속해서 방류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블렌딩차 4종 '티 퍼레이드' 본격 출시

보성군은 유기농 녹차와 홍차를 베이스로 다양한 맛과 기능을 가진 4가지 종류의 블렌딩차 '티 퍼레이드'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차산업연구소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난해 시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 반응이 좋아 올해 본격 출시하게 됐다.

신제품 생산은 지난 4월 관내 차생산 농가 중 '티 퍼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군에서 공모해 '백록다원'이 생산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티 퍼레이드 '아침을 깨우는 차'는 홍차를 베이스로 인도아쌈, 자스민, 오렌지필 등이 더해져 풍부한 향과 함께 정신을 맑게 해주며, '행복을 꿈꾸는 차'는 홍차에 루이보스, 민트, 스테비아 등을 블렌딩하여 피로회복과 숙면을 도와준다.

'녹차 미인 차'는 녹차를 기본으로 우엉과 어성초, 다즐링, 레몬그라스가 혼합되어 노화방지와 피부미용에 좋으며, '라인을 살리는 차'는 녹차에 돼지감자, 마테 등을 섞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귀농·귀촌인 위한 홍보물품 제작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관계 해소

영광군은 지역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달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 해소 및 안정적 정착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통계를 살펴보면 332가구 632명으로 영광군 귀농귀촌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 부각으로 영광군은 이웃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홍보물품인 수건 50매를 제공한다.

농촌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귀촌인들이 이 홍보물품을 이웃주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마을 사람들과 좀 더 수월하게 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념품 신청 시 가족 소개 문구를 넣어 주문·제작하므로 더욱 친근감 있고 따뜻한 이웃 주민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홍보물품 제작지원은 농촌이주 전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가족(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미만의 만65세이하 귀농·귀촌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팀으로 방문(문의전화 350-4833)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개최

구례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문화체험 팸투어를 개최했다.

1박 2일로 진행한 이번 팸투어는 30여 명의 도시민이 참여했으며, 구례로 성공 정착한 6차 산업 선도 농가 견학 등 귀농·귀촌 최적지로서 구례를 홍보하는 활동이 펼쳐졌다.

첫날 팸투어에 참가한 도시민들은 귀농·귀촌 사관학교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이하 체류형센터)를 방문해 체류형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교육생 모집 일정 등을 안내받았으며, 숙소와 실습농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귀농 후 6차 산업 및 농어촌관광농원 인증을 받은 선도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 체험 활동을 했으며, 귀농·귀촌 선배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명승으로 지정받은 사성암 등반과 전통 양반가옥 운조루 탐방, 한국압화박물관 관람 등 구례의 전통문화유산을 체험했다.

구례=박진호 기자